말씀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시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맡기신일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골리앗을 죽인 다윗 공과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새겨지시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받은 교훈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17장 3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오늘 공과는 거룩한 분노의 대명사,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불리우는 사나이 그 다윗 그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골리앗을 싸워이긴 골리앗을 죽인 다윗 그 주제입니다.

읽었던 본문말씀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여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가서 저 블레셋사람과 싸우리이다.

한마디로 다윗은 물매와 돌맹이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물매와 돌맹이 사용하기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Vamos a aprender la palabra.

Dios Gracias por salvarnos del pecado y de la prevaricación

Hoy, en esta hora también gracias por enseñar la palabra del Señor en la iglesia, que es el cuerpo del Señor

y gracias por permitirnos la oportunidad preciosa que pueda encargar el ministerio del señor

Hoy a través de David quien mató a Goliat,

Esperamos que las lecciones que nos da /se graben- en el corazón de los profesores

Y te rogamos que ayudes para transmitirlas bien a los estudiantes.

Hemos orado en el nombre de Jesús que nos ama siempre.

Amen.

1SA cap 17/ versículo 32.

Vamos a leer juntos 17:32

1Sa 17:32 Y dijo David a Saúl: No desmaye el corazón de ninguno a causa de él; tu siervo irá y peleará contra este filisteo.

El tema de hoy es el término de la indignación.

Un hombre llamado como los ojos de Dios, David,

Acerca de David, aprenderemos

Específicamente el tema sobre David que mató a Goliat en la lucha.

Si vemos el versículo que hemos leído,

Y dijo David a Saúl: No desmaye el corazón de ninguno a causa de él; tu siervo irá y peleará contra este filisteo.

En una palabra, David fue un hombre quien halló la gracia con honda y piedras.

Por la que él estaba acostumbrado a usar honda y piedras

그래서 오늘 공과를 통해서 아 나는 과연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공과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해져있을까?

혹시 익숙하다는 착각 때문에 익숙하다는 교만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아이들에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무모함을 혹 내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과를 통해서

나와 아이들 사이를 교란시키고 또 가로막고 있는 그 사단의 이마에 다윗이 던진 돌맹이처럼

정통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탁맞아 쓰러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공과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다윗처럼 이렇게 사자와 곰에서 구해낼 수 있는

뭐 그런 익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공과내용에서 가장 대조되는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이 두 장면입니다.

가장 대조적인 장면 하나는 다윗이 시냇가에 가서 돌맹이를 줍고 있는 모습, 장난하는 거 같잖아요.

하나는 그 돌맹이에 맞아서 단번에 쓰러지는 골리앗의 모습 ...엄청나잖아요.

장난같이 보였던 그 돌맹이 줍는 모습이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게 당대 최고의 적이었던 블레셋과 그의 수장이었던 골리앗이 쓰러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돌맹이 줍는 장면과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돌맹이 하나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돌맹이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딱 쥐여지니까 그리고 그가 그 돌맹이를 날리니까 하나님의 손이 돌맹이의 방향을 잡아주었다.

Entonces, a través de la lección de hoy, ¿Estoy tan acostumbrado al tema sobre David y Goliat?

Quizás por la confusión de que estoy familiarizado,

O debido al orgullo,

**¿Estoy** adelante de los estudiantes sin ninguna preparación?

Y ¿Estoy repitiendo tal imprudencia? Necesitamos pensar en esto.

Pues por medio de esta lección,

 En la frente del diablo que divide y bloquea entre los estudiantes y yo, así Como la piedra de David que se tiró zas(탁) en medio de la frente de Goliat..

Por Familiarizarnos con esta lección,

Podremos librar a los estudiantes como David salvó desde oso y leon. (como David lo hizo con un león o un oso

Creo que sería bueno pensar en el tema de tal familiaridad.

Personalmente en el contenido de David y Goliat estas dos escenas son las escenas más contrastantes

Una escena más contrastante es que David está recogiendo unas piedras en el arroyo, parece que está jugando.

Y otra escena es que Goliat se cayó de inmediato con esta piedra. /Es enorme...

Es decir, Recoger las piedras que parecía una broma, no fue una broma

Esto trajo un efecto tremendo, que resultó en abatir al mayor enemigo, los filisteos y en hacer caer a su capitán Goliat.

Fue una escena que contrasta totalmente con la de escoger las piedras.

En una palabra, una piedra ha cambiado la historia de Israel.

¿ Por qué y cómo? Una piedra que es nada, cuando es agarrada por la mano del hombre de Dios, Al tirarla, la mano de Dios dirige la dirección de la piedra.

그래서 그 놀라운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것이 오늘 다룰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결..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사실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에 대한 공과를 배우셨을 겁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점점점점 퇴보해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 한 왕을 예선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다음 왕 그가 다윗이고 그 다윗을 준비시키는 장면이 사울과의 만남,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현장에 찾아가게 된 다윗의 모습...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정리하면

하나님이 사울왕이 결국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을 아셨죠.

하나님께서는...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을 꼭 세우셔야만 했을까?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을 배제하면 망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특별히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큰 주제입니다.

시작은 아주 좋은데 끝은 철철하게 망한다.

중간에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면

그래서 루시퍼는 천사로 시작해서 사탄으로 끝났죠.

그리고 가롯유다는 열두 제자롤 시작해서 배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아주좋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왕이되었는데

교만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철철히 망하게되는

그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교만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 그 것이 한마디로 사울의 생애다.

사울의 생애가 주는 성경에서의 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or lo cual sucedió esa maravilla.

Es la historia que hoy aprenderemos.

El enfrentamiento de estas 2 personas.

Esa lucha entre David y Goliat, en realidad, empezó por un hombre llamado Saúl.

En la clase anterior, quizás aprendieron sobre Saúl.

Saúl, espiritualmente retrocedió cada vez más hacia atrás.

Y para proteger a Israel, (Dios) preparó previamente a un rey

Este siguiente rey, fue David

Y la preparación de David fue de encuentro con Saúl.

Y que David se fue a la guerra contra los filisteos.

Así están conectados.

Si resumimos brevemente sobre el Rey Saúl.

Dios supo que el rey Saúl se volvería arrogante y desobedecería a Dios.

A pesar de que lo conocía, ¿Por qué Dios tuvo que levantar a Saúl?

Para mostrar que no importa cuán buena sea la condición humana, si excluye a Dios, se llevará a cabo en la destrucción, representó al rey Saúl como el protagonista.

Es un tema crucial en la biblia.

En el comienzo era muy bueno, pero Si Dios es excluido en el medio, al final total destrucción. Si Dios es excluido en el medio

Así que Lucero comenzó siendo ángel, pero terminó como Satanás. Y Judas Iscariote fue uno de los 12 discípulos pero se convirtió en un traidor.

Saúl se convirtió en rey con muy buenas condiciones humanas, Pero a través del proceso de ser orgulloso,

se destruyó totalmente.

El proceso de enorgullecerse rechazando a Dios, es la vida de Saúl En una palabra.

Es una gran lección en la Biblia que nos enseña la vida de Saúl

사울의 장면장면들을 보게 되면 항상 자신의 죄를 자기논리로 정당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렇구나 내가 항상 나에대해서 관대하고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야 내게도 다윗과같은 아니....사울과 같은 아집이 있구나

사울이 아집으로 인해 망했더라면 내게도 큰 경계가 될 수 있겠다.

아집... 그 것은 신앙의 최대 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이렇게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준비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6장 보시면요.

16장 1절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배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울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슬퍼하는 사무엘을 책망하십니다.

그러고 있지말고 가서 내가 예비한 내가 예선한 한왕을 찾아가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왕이 바로 다윗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온 세대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자면 다윗왕...틀림없을 겁니다.

세 번이나 기름부움을 받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왕계를 탁 세우는 인물...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하나님의 눈에 탁 들어왔을까?

그 힌트가 그 답이 16장 7절에 있습니다.

Cuando vemos cada escena de Saúl, siempre podemos ver que él justificaba su pecado con su propia lógica.

Así que Ah.. Yo también, doy a mí mismo hasta las entrañas (muy generoso a mí), soy muy egoísta.

Soy muy obstinado como Saúl..

Si Saúl hubiera sido arruinado por su obstinación, sería una gran lección para mí.

La obstinación~~,~~ es el mayor enemigo de la fe.

Pensamiento egocéntrico, así que Dios tuvo que preparar a un nuevo rey. -Para Israel.

De esta manera, empezó el tema de hoy,

en el capítulo 16,

1Sa 16:1 Dijo Jehová a Samuel:

¿Hasta cuándo llorarás a Saúl, habiéndolo yo des-echado para que no reine sobre Israel?

Llena tu cuerno de aceite, y ven, te enviaré a Isaí de Belén, porque de sus hijos me he provisto de rey.

--

Samuel estaba triste. Y Dios está reprendiendo a Samuel quien estaba afligido.

¨No hagas así, vete a encontrar a un rey que yo lo preparo, y lo unges.¨ Así le mandó

Es David, el hombre llamado como los ojos de Dios

Si escogemos un gran hombre de entre todas las generaciones, ciertamente es David

Un hombre que recibió tres veces la unción y que finalmente levantó el linaje de Cristo-Él es David.

Pues ¿Cómo era, David?, ¿Cómo fue llamativo ante los ojos de Dios?

La llave, la respuesta está en 16:7

16장 7절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중심을 가장 중요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 중심이

마음에 쏙드는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다윗 ...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용모와 신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그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한 한 사람이 이새의 여러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탁 찾았을 때

그를 두고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올리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중심이 하나님과 완전히 합해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는 그 과정에 나름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한번 11절 보시면요.

16장 11절보시면 (11:07)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제가 톤을 낮춰서 읽었는데요 클라이막스답게 읽어올리겠습니다.

Leamos juntos 16:7

1Sa 16:7 Y Jehová respondió a Samuel: No mires a su parecer, ni a lo grande de su estatura, porque yo lo desecho; porque Jehová no mira lo que mira el hombre; pues el hombre mira lo que está delante de sus ojos, pero Jehová mira el corazón.

Dios es quien mira el corazón, Encontró a una persona que le gustó. Él fue David

El Joven David. Lo que llama la atención de Dios no es su parecer ni la estatura

Sino que Dios mira el corazón

Pero, había uno entre los hijos de Isaí, cuyo corazón estaba centrado en Dios totalmente

Entonces, cuando Dios encontró a ese David cuyo centro estaba hacia a Dios

Sobre Él, (Libro) Hechos se expresa así.

Yo leo Hechos 13:22

Les levantó por rey a David, de quien dio también testimonio diciendo: He hallado a David hijo de Isaí, varón conforme a mi corazón, quien hará todo lo que yo quiero.

Varón conforme a mi corazón

Un varón cuyo corazón conforme a Dios, fue David.

Pero en el proceso de ser ungido,

había tales climax~~(~~tales puntos importantes culminantes)

Si vemos versículo 11. 16:11

1Sa 16:11 Entonces dijo Samuel a Isaí: ¿Son éstos todos tus hijos? Y él respondió: Queda aún el menor, que apacienta las ovejas.

He leído con voz baja, Vuelvo a leerlo como clímax.

야~~네 아들들이 여기 다...다냐? 이게 다라면 큰일난다. 또 없냐?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때 이새가 말하는겁니다. 말째가 하나 있기는한데요. 양치러 나갔는데요.

이 이새의 말투는 이런겁니다.

아직 말째가 남아있기는한데, 당신은 지금 그 아이에게 기름이라도 붙겠다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걔는 양치는 얘고 미성년자이고 형들이 이렇게 있는데 걔를 데리고 오면 기름 부을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아주 회의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질문은 이게 다냐?

이러면 안 되는데....분명히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들에게 있을거라고 가라고 하셨는데,

없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름붙는 과정에 있어서 나름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것입니다.

겨우 양치는 아이에 불과했던 다윗의 어린 시절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양치는 아이가 아니었죠.

다윗은 그 어린 시절 동안 양치는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훈련...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일하는 거 같죠. 너는 사람일 열심히 해라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늘도 훈련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내일도 훈련하자

잘하고 있다.

이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때는 치고 나가는 거야

이땐 입 벌려서 꺼내는 거야

그래 잘했어 또 그렇게 하는 거야

남들이 보기에는 양 한 마리 건져내고 ... 잘하고 있네...

사람이 보았을 때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전혀 다른 평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린시절부터

아버지가 마련해주었지만 하나님이 마련해주신 훈련장에서 아버지가 주신 소품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품으로 훈련을 받고 있었다.

Oye, Ellos son todos tus hijos? Si hubiera sido todos,

Es problema,! no hay alguien más? Es el Clímax.

Y Isaí dice, Queda aún el menor......

 pero él salió para apacentar las ovejas.......

El tono de Isaí fue así.

Si,, aunque todavía falta el menor. Pero Por qué? ¿Quiere ungir a este niño?

¿Eso tiene sentido? Él es pastor y es menor de edad. Y sus hermanos mayores están aquí, pero ¿Quiere ungir a él?

Fue una actitud muy escéptica. (negativo)

Sin embargo, la pregunta de Samuel fue... eso fue todo?

No puede ser. Dios dijo que habría alguien entre los hijos de Isaí.

Si no hay, es el problema

Así que eso fue el clímax en el proceso de ungir.

Solo fue un niño que pastoreaba En Su niñez.

Pero David no fue solamente chico ovejero.

David, durante su niñez, estaba entrenando apacentando,El Entrenamiento

Parece que solo está trabajando. Trabaja duro para la gente.

Pero en el punto de vista de Dios, estás entrenando hoy también. Muy bien!

Mañana también entrenamos

Muy bien Hagas así en aquel momento

En este momento hay que adelantar.

Es este momento sácalo ensanchando la boca.

Muy bien. Haga así de nuevo.

En vista de los ajenos, salvar a una oveja, 모. Bien

Pero ante la vista de las personas y la vista de Dios, pueden llevar a cabo una evaluación completamente diferente.

Así, David, desde su niñez.

En el campo de instrucción, donde Dios preparó, aun su papa preparó,

Con las cosas que Dios preparó, aun le dio su padre

그렇게 다윗은 어린시절부터 훌륭한 훈련에서 훈련을 받고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왕으로 예선을 하신겁니다.

그렇게해서 다윗은 기름부음을 받게됩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치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 장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지십니까?

두 산이 있습니다. 가운데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가 협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지로 되어있습니다.

양 그 산에는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거기 이렇게 무대와도 같은 나지막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팽팽한 긴장감이 보이고

한쪽에서는 위축되어있고 한쪽에서는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전쟁구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장면입니다.

한쪽은 약해져 있고 한쪽은 강한 상태라고 그랬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은

왕이, 사울왕이 결별한 상태죠.

그리고 악신에 시달려서 병이 들은거죠. 일종의....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군대의 사기는 저하되어있는 상태일겁니다.

왕이 매일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야만 안정되는 상태니까...

그런데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Así, David desde su niñez, había sido entrenado bien en el campo de entrenamiento.

Y Dios ha venido a David

Y lo levantó como un rey.

Entonces David fue ungido.

Pero, en el algún día, la guerra se ocurrió.

Eso es el capitulo 17, 17, a 1ª 3

Voy a leer de 1 al 3 juntos.

1 Los filisteos juntaron sus ejércitos para la guerra, y se congregaron en Soco, que es de Judá, y acamparon entre Soco y Azeca, en Efes-damim.(에베스다밈)

2 También Saúl y los hombres de Israel se juntaron, y acamparon en el valle de Ela, y se pusieron en orden de batalla contra los filisteos.

3 Y los filisteos estaban sobre un monte a un lado, e Israel estaba sobre otro monte al otro lado, y el valle entre ellos.

Pueden imaginar esa escena?

Hay 2 montañas y hay un valle en el medio.

Pero el valle no es angosto sino es plano.

Entre 2 montañas había 2 campamentos de filisteos y de Israel. Hay un valle

Allí hay una tensión apretada

Una parte se quedaba de piedra y otra estaba lleno de confianza en sí mismo.

Es la escena de la batalla entre Israel y los filisteos.

Un lado está débil y otro lado está fuerte.

había razón. Porque el campamento de Israel..

El rey, el rey Saúl se separa de Dios.

Y estaba enfermo y conmovido por el espíritu maligno. Así Se está poniendo más difícil

El pueblo y el ejército estaban desanimados.

Porque el estado del rey solo puede aliviarse cuando David toma el arpa

¿Pero Cómo fueron los filisteos?

과거에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 때문에 한번 호되게 전쟁에서 진 적이 있죠.

그런데 요 약해진 상황을 보니까 옳거니 하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군대앞에 포진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세를 봤을때에는 어떻게 보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힘들겠다. 힘들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필...하필...골리앗이 등장하는 겁니다.

안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축되어있는데...

거기 골리앗이 탁 등장하는데...

그가 얼마나 중무장을한 거대한 사람이었는지 유독 17장에서는 길게 묘사를 해줍니다.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왜 이 골리앗을 그의 그 중무장상태를 자세히 언급을 하셨을까?

이런식을 진행이 되잖아요. 4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읽어올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썻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오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베틀채 같고 창날은 철 육백세겔이며 방태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3미터키의 55킬로그램의 갑옷 10킬로그램의 창자루 거인인데다 중무장을 했잖아요.

한마디로 딱 봐도 넘 볼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넘지못 할 산처럼...

야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야 이제 더 길이 없을거 같다.

여기서 내가 결국 꺽이는구나

이런걸 아주 충분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보여준 겁니다.

얘는 이런데 얘는 요렇다.

Ellos perdieron en el pasado. Debido a Saúl y Jonatán. En la batalla.

Pero observando la situación débil, pasando el territorio de Israel, se colocaron en la posición ante el ejército de Israel.

Pero, al ver la situación de la guerra, cómo pueden imaginar?

Uy muy díficil, díficil

Ahora tal situación. Y en esta situación en (enhoramala). Apareció Goliat.

Ya los israelitas perdieron el ánimo....

Mas ahí salió Goliat.

Cuán gran hombre armado fue..

Especialmente el capitulo 17 describió muy largo.

¿Habéis pensado la razón?

¿Por qué mencionó detalladamente sobre el estado de Goliat tan armado?

Así dice. Desde versículo 4 hasta 7. Leo rápidamente.

 (4) Salió entonces del campamento de los filisteos un paladín, el cual se llamaba Goliat, de Gat,

y tenía de altura seis codos y un palmo.
(5) Y traía un casco de bronce en su cabeza, y llevaba una cota de malla; y era el peso de la cota cinco mil siclos de bronce.

(6) Sobre sus piernas traía grebas de bronce,

y jabalina de bronce entre sus hombros
(7) El asta de su lanza era como un rodillo de telar, y tenía el hierro de su lanza seiscientos siclos de hierro; e iba su escudero delante de él.

3 metros de altura, 55 kg de la armadura(cota), 10 kg de jabalina. Él era un gigante y estaba bien armado.

Es decir, Por lo visto, es una persona que no se puede vencer.

Como una montaña que no puede sobrepasar.

Ay. Hasta aquí.... Ya no hay otro camino

Yo voy a caerme aquí al final

Estas cosas se están mostrando muy claramente.

Y Después mostró a David

Él fue así, él hizo así.

그런면 이제 필요한 건 뭐냐는겁니다.

얘는 이렇게 얘는 요런데...그럼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

이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

그 사단의 세력이 항상 우리보다 강하게 보이죠. 맞습니다. 사단은 강합니다.

뭐 이제 굉장히 강한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사단은 강한자가 맞는데...

더 강한자가 있으니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자를 보여주십니다. 약한 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 뒤에 있는 더 강한자를 보여주십니다.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할 수 있겠다. 되겠다.

강한자만 봤을 때는 엄청 위축되는데...

야!~~야!~~~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그 장면을 우리 맘속에 그려주시는 겁니다.

생생하게...그렇게 더 강한 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밑그림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막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롱하는 장면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엄청 조롱을 합니다. 8절보시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 블레셋의 수장 이 그 장수였던 골리앗은 지금 딱 하나만 못보고 있습니다. 딱 하나...

다 봤는데 딱 하나 이스라엘의 하나님...다윗의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이런 망언을 하게되는겁니다.

교만한 대적자는 성도뒤에있는 하나님을 못본다.

Pues, qué necesita Ahora?

ÉL así, él era,..Él así era y ahora que tenemos que hacer.

Ahora se necesita Dios

Y Mientras eso..

La fuerza del diablo parece más fuertes que nosotros.

Es correcto. El Diablo es muy fuerte.

Y parece que es un hombre tan fuerte

Pero una cosa.

Hay Dios que es el más poderoso .

Por lo cual él muestra al más fuerte(Goliat).

Y me muestra a mí tan débil

Y él me muestra al más fuerte detrás de mí.

Entonces, ¿Que va a pensar?

Ah~~~Si se puede. Puedo hacerlo

Cuando miro solamente a la persona fuerte frente a mí, estaba desmayado.

Pero ahora Oye, Hey! Así iré

Y nos está trazando (deseñando) en nuestra mente

A lo vivo, Nos muestra un boceto (trazo) de ser nuestro Dios tan poderoso.

Juntos sale una escena que Goliat está burlando al pueblo de Dios.

Su burla sale desde versículo 8 hasta 10.

Hizo mucha burla. Si miramos 8.

Y se paró y dio voces a los escuadrones de Israel, diciéndoles: ¿Para qué os habéis puesto en orden de batalla? ¿No soy yo el filisteo, y vosotros los siervos de Saúl? Escoged de entre vosotros un hombre que venga contra mí.
9 Si él pudiere pelear conmigo, y me venciere, nosotros seremos vuestros siervos; y si yo pudiere más que él, y lo venciere, vosotros seréis nuestros siervos y nos serviréis.

Y añadió el filisteo: Hoy yo he desafiado al campamento de Israel; dadme un hombre que pelee conmigo.

Goliat, la cabeza de este filisteo, ahora no ve solo una cosa. Una

El ve todos pero falta una. El Dios de Israel.

Puesto que no ha visto al Dios de David, dijo absurdamente. El enemigo orgulloso no puede ver a Dios detrás de los santos.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혹 골리앗과 같은 기질은 없는가?

순간 하나님이 먼저 보이기보다는 육신적인 것이 먼저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먼저 올라오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

당장 적으라면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적었더니

하나님 아닌 것이 적혔다면 아 내가 가장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떠오르는 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으면 두려움이 떠오르는구나

그게 맞구나 그리고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보다는 마귀의 유혹의 목소리가 들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 하나님 의지해라. 기도해라. 나아가라. 일어나라.

그런데 이 믿음이 사라지니까 그 음성이 들리기 보다는 여러 가지 유혹, 좌절, 의심, 불신의 소리가 자꾸 귓가에 들리는 겁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기서 의인은 뭡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자같이 담대한 이유는 그 뒤에 계신하나님은 힘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22)

그래서 아 ~~ 혹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보다는 두려움으로 먼저 떨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다라면 뭔가 내 믿음에 결함이 있는... 있을 수 도 있겠구나.

그래서 신앙을 교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전을 치르는 그 타이밍에 다윗을 그 현장으로 요렇게 보내주십니다.

Ah. No se puede evitarlo. Pero quizás en nuestro corazón no habrá hábito igual que Goliat?

Al instante, más que ver a Dios, primero veo las cosas carnales. Por lo cual tengo miedo... Cuando surgen algunos asuntos, qué pienso yo en primer lugar?

Podremos escribirlo ahora mismo. Si escribo,

Y Si están escritas las cosas que no sean sobre Dios,

Ah. Lo que vino primero a mi mente, no es Dios.

Porque no es Dios, surge el miedo cuando tenga un problema.

Ah,, es cierto. Si no viene Dios a la mente, surge el miedo.

Es verdad y En el lugar de la fe, vendrá la voz del Diablo para tentar, en vez de la voz de Dios.

Así que Dios,(dice) Esforzaos, Esperáis en Jehová.

Orad, Id, levantaos.

Pero como pierde esa fe, más que esta voz,

Se escucha en mis oídos la voz de la tentación, la frustración, la duda, la desconfianza

Proverbios 28 :1

Mas el justo está confiado como un león.

Aquí ¿Quién es el justo? El hombre que tiene la fe.

Hombre que tiene la fe es valiente como un león

La razón de que es valiente como un león, es porque está confiando en Dios que está detrás de él.

Entonces, ah ¿Quizás no estuviera temblando por el miedo más que por Dios cuando surge ciertos problemas?

Pues podría faltar en mi fe.

Así que es necesario que corrija su fe.

Ahora Dios en el momento que este Israel y los filisteos están peleando, Envió a David a ese lugar de la lucha.

근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죠.

17절 보시면 17장 17절보시면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다윗에게 아버지가 명령합니다.

 당시에 군사 편제가 이런겁니다. 정규군이 있는게 아니라, 정규군이 없습니다.

전쟁나면 20세이상 소집해서 전쟁터에 내보내는겁니다.

정규군이 없다라는 것에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비축 식량이 없다.

전쟁이 길어지면 집에서 알아서 음식을 조달해야 합니다.

이제 전쟁이 길어졌죠. 왜냐면 블레셋사람이 사실을 조석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가족들은 식량을 조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버지도 이제 세 명의 아들 중에 세 명이나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가서 좀 갖다주고 와라 음식을...

이렇게 좀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타이밍이 딱 그때였다는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건 이 표현이죠.

19절 보시면요.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그때가 그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마침 그때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3절입니다.

22절부터 읽어올리겠습니다.

Pero hay una expresión aquí.

Si vemos el versículo 17.

1Sa 17:17 Y dijo Isaí a David su hijo: Toma ahora para tus hermanos un efa de este grano tostado, y estos diez panes, y llévalo pronto al campamento a tus hermanos.

Le mandó el padre a David

En esa época, así fue la organización del militar. No había un ejército regular (tropas regulares)

Si ocurre una guerra, serán convocado los jóvenes a partir de los 20 años de la edad y serán enviados al campo de la batalla.

¿Cuál es la mayor característica de que no hay un ejército regular? No hay reservas de alimentos ¿

Cuando la guerra se prolonga, es necesario enviar la comida en la casa.

Ahora la guerra se prolonga. Porque el filisteo también entró y salió por la mañana y tarde.

 El tiempo se hace más largo

Así que las familias tuvieron que enviar los alimentos y el padre también a sus tres hijos que salieron en el campo de la guerra, y le envió a David para abastecer las comidas...

Pero justamente el momento fue en ese tiempo

Lo más asombroso es esta expresión.

Si vemos versículo 19..

1Sa 17:19 Y Saúl y ellos y todos los de Israel estaban en el valle de Ela, peleando contra los filisteos.

1Sa 17:20 Se levantó, pues, David de mañana, y dejando las ovejas al cuidado de un guarda, se fue con su carga como Isaí le había mandado; y llegó al campamento cuando el ejército salía en orden de batalla, y daba el grito de combate.

Oportunamente ese momento.

Más asombroso fue el versículo 23. Leo desde 22.

[다윗이 그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오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성경에서 마침 그때 하필...하나님의 단어죠.

하나님만 소유하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우연을 타고 하나님의 필연이 시작되는데, 다윗이 하필 그때에 탁 듣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들으니라.

왜냐면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야죠. 다 듣는겁니다.

마침 다윗이 들으니라. 이제 시작되는겁니다.

이 다윗이 아버지에 의해서 이 전쟁터의 장소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가막힌 인도와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26절보시면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26절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이면 뭐 재물도 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세금면제의 자유도 주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말하는겁니다.

잠깐 이 블레셋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한다고?

라고 물어보는거냐?

의도가 혹시 보상을 바라는 의도냐 ?

그렇게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데....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상이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재차 물어본 장면이 절대 아닙니다.

22 Entonces David dejó su carga en mano del que guardaba el bagaje, y corrió al ejército; y cuando llegó, preguntó por sus hermanos, si estaban bien.

23 Mientras él hablaba con ellos, he aquí que aquel paladín que se ponía en medio de los dos campamentos, que se llamaba Goliat, el filisteo de Gat, salió de entre las filas de los filisteos y habló las mismas palabras, y las oyó David.

El momento oportuno, precisamente (enhorabuena)

Son el término de Dios.

Es el término que puede poseer solamente Dios.

Entonces en el tiempo y la oportunidad, Comienza la inevitabilidad de Dios, en aquel tiempo David lo escuchó

Lo oyó David.

Porque David fue el hombre que tuvo que levantar una ira santa.

Tuvo que oír. Oyó todo.

Las oyó David. Así comienza

Podemos considerar que había la guía y la providencia en que David se fue al lugar de esta guerra por el mandato de su papá que fue guiado por Dios

En el versículo 26.

26 Entonces habló David a los que estaban junto a él, diciendo: ¿Qué harán al hombre que venciere a este filisteo, y quitare el oprobio de Israel?

Porque ¿quién es este filisteo incircunciso, para que provoque a los escuadrones del Dios viviente?

Antes del versículo 26, dijeron así.

Al que le venciere, le enriquecerá con grandes riquezas y dará su hija, también exento de impuesto...

Pero David escuchando eso dijo,

Oiga, ¿Qué harán al hombre que venciere a este filisteo?

Así preguntó?

Quizás su intención fue para recibir la recompensa? Se Podría malentender. Pero No.

Es incorrecta.

Jamás les preguntó de nuevo por la curiosidad sobre la recompensa.

이거죠.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은 이스라엘에서 치욕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사람이라면 당연히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지

그것이 보상도 할까말까 고민하는 문제이겠느냐?

라는 거룩한 분노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이 골리앗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건 보상을 떠난 문제다.

이건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의 양심의 문제다.

 그러면서 자신의 출전의사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담대하게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형이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골리앗형이....교만하다고 너 구경하러 왔지.

늘 네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소리하냐?

그리고 너 양은 어떻게 했어 ?

너는 양만치는 아이잖아.

양치는 아이는 양치는 곳에 있어야지.

네가 뭐라고 여기 왔어.

그리고 네가 뭔데....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이 교만이 꽉찬 아이야.

아무리 동생이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에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말을 누군가 사울에게 고하고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다윗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말씀입니다.

이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공과제목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지만, 개인적으로 부제를 달아본다면

 ‘가서 싸우리이다’

그것이 공과의 부제일수가 있습니다.

Eso fue. Vencer a Goliat es quitar el oprobio de Israel. Pues al ser él israelita, debe hacerlo por supuesto!

¿Sería una cuestión de preocuparse si será o no recompensado? Fue la expresión de la ira sagrada

Así que me ocuparé de eso. Filisteo que insulta al ejército del Dios, no dejaré quieto a Goliat.

Eso no es una cuestión de la recompensa.

Sino es la cuestión de la conciencia del Soldado de Cristo.

De esta manera, así está revelando su motivación de participar a la guerra cuidosamente y audazmente.

Pero lamentablemente sus hermanos mayores reprocharon a David.

Tú, soberbio, ¿para ver la batalla has venido?

Tú no sabes nada, pero que dices.

¿Y a quién has dejado aquellas pocas ovejas?

Tú eres ovejero nada más

El Ovejero tiene que estar en el lugar de ovejero.

¿Para qué has venido acá?

Y ¿Quién eres tú? ¿Que dices?

Lleno totalmente de la soberbia y malicia.

Aunque es el hermano menor. Dijo así

Pero ahora vamos a ver cómo dijo David.

Alguien dijo a Saúl sobre David y le llamó Saúl a David.

Y el dicho de David a Saúl fue la primera palabra que habíamos leído.

Leamos de nuevo esa palabra

Versículo 32. Leamos juntos.

1Sa 17:32 Y dijo David a Saúl: No desmaye el corazón de ninguno a causa de él;

tu siervo irá y peleará contra este filisteo.

El título del tema es David quien mató a Goliat.

Pero Si pongo un subtítulo, [Iré y pelearé]

Podría ser el subtítulo de ese tema.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사람과 싸우리이다.

여기서 세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만과 용기의 차이는 뭘까?

두 번째 무모함과 담대함의 차이는 뭘까?

세 번째 두려움과 담대함은 뭐가 다르냐?

그 차이점을 이 한 구절을 명확하게,

다윗의 어린시절을 통해서 유추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용기의 차이...액션은 비슷합니다. 나서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 생각해보십시오.

겸손한자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섰습니다. 교만일까요. 용기일까요? 용기죠.

겸손한자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용기입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무례하게 내가 할께요라고 하면 교만입니다. 왜냐면

내가 할게요라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배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왜 겸손합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자가 왜 교만합니까? 사울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되는 순간부터...그때부터가 교만이 시작되는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 다윗이 말하는 장면에서는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무모함과 담대함의 차이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아주 위험한 일을 어 제가 할게요.

하면서 나서면 무모한걸까요? 담대한 걸까요?

무모한 겁니다.

왜 이런 거 때문에 그러죠.

이 사람이 평소에 열심히 그와 흡사한 일을 연습했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딱 주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아 그럼... 제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모함이냐 담대함이냐?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Tú siervo irá y peleará contra este filisteo.

Aquí podemos reflexionar 3 asuntos.

¿Cuál es la diferencia entre la Valentía y la Soberbia?

En el segundo lugar, ¿Cuál es la diferencia entre la intrepidez y la audacia?

Y en el tercer lugar, ¿Cuál es la diferencia entre la imprudencia y la audacia?

Esta diferencia, A través de esta palabra,

Claramente podemos razonar por la niñez de David.

La diferencia entre la Valentía y la Soberbia. Sus acciones son similares. Pero piensen Qué son diferentes?

Si un hombre humilde dice lo haré

Pues es la arrogancia o la valentía?

La valentía.

Si el humilde dice que lo haré, eso es la valentía.

Pero si un hombre que no es humilde, descortésmente dice que lo haré. Eso es la soberbia. Por qué?

En su corazón dice que lo hará pero está excluido Dios.

Él humilde, Por qué es humilde? Por que está lleno de Dios en su corazón.

Él soberbio, Por qué es soberbio? Podemos entender al ver a Saúl.

Desde el momento que rechaza a Dios, empieza la arrogancia. Por eso en el la escena que David dijo, es la declaración de la valentía.

Y en el segundo lugar, podemos pensar en la diferencia entre la imprudencia y la audacia.

Si alguien dice que hará lo que nunca ha intentado, una cosa tan peligrosa. Lo haré.

Pues es imprudente o valiente?

Es imprudente. Por qué?

Si esa persona ordinariamente practicaba, y solía hacer lo similar. Hacía entrenamiento.

Y le dio una situación que pueda aplicarlo.

Pues en esa situación, Ah bueno pienso que tengo que hacerlo. Pues ¿Es imprudente o audaz?

Es Audaz.

한마디로 이 장면에서 무모함과 담대함의 차이를 가를수 있다면

그것은 훈련의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하고 나오면 담대함이고

훈련없이 나오면 무모한거겠죠.

훈련없이 나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쉽게

속어로 깡만좋다 그러죠. 깡만....

그럼 두려움과 담대함의 차이도 엿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유사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까 교만과 용기 무모함과 담대함....다 나서는 장면인데..

이 두려움과 담대함의 차이는 소극과 적극의 모습입니다. 이 차이가 뭘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많이들 암송하고 계실겁니다.

사랑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쫒나니....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차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뭐냐 여기서...

그가 주님을 사랑했고 그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이제 그 사랑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지켜야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한마다로 사랑 때문에 나아간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

그럼 나도 누군가를 붙잡아 주길 위해 교회학교 일선에 나설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하면 이 복음을 어린아이들에게 깊이 심겨줘야 되겠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내가 여전히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두려움은 있다. 그러나 사랑이 개입하니까 사랑을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 때문에 ...그래서 나아간겁니다.

En una palabra, si podemos dividir entre la imprudencia y audacia en esta escena.

Se puede decir que es si tiene o no el entrenamiento.

Si se enfrenta sin entrenamiento, es la imprudencia

¿Cómo se dice enfrentar sin entrenamiento?

En el lenguaje vulgar?

Como una gallina, un pero.

Pues, podemos escudriñar la diferencia entre el miedo y la audacia.

Pero no están en una situación similar

Antes, la Soberbia y la Valentía, La Imprudencia y la Audacia..... todos están de la actitud positiva.

Pero la diferencia entre el miedo y la audacia es

 de la actitud negativa o positiva.

Pues qué son diferentes?

1 Juan 4:18 Habéis memorizado todos.

En el amor no hay temor, sino que el perfecto amor echa fuera el temor

Si tiene el amor, si está lleno de amor, el miedo desaparecerá.

Pues ¿Qué es David aquí?

Él amó al Señor y fue amado por El Señor.

Y ahora es quien tiene que pagar su amor

Y debe proteger a Israel que El Señor ama.

En una palabra, David fue el hombre que enfrentó por su amor.

El Señor que me salvó y me protege y me sostiene hasta hoy.

Pues yo también para sostener a alguien, debo de enfrentar (ayudar en la escuela de la iglesia.

Por el amor. Si tienen el amor, pueden rechazar el miedo. Si estás lleno del amor,

Ah tengo que sembrar profundamente este evangelio a los niños.

Porque cuán grande es el amor que yo recibí, y sigo estando dentro de ese amor...

Aun que tengo miedo, solo interviene el amor, pensando en ese amor, no puedo quedarme quieto.

Por la conciencia del Cristo, por lo cual sigo adelante.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고

그리고 훈련된 모습 속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으며 결정적으로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싸우겠나이다라는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이런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나는 눈치를 살피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가 가겠나이다라는 신앙인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신앙을 가졌던 여인이 있죠.

주여 내가 여기있나이다라는 신앙을 가졌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고백처럼 누군가의 이런 안타까운 고백처럼 우리는 너무 약아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눈치를 살피는 신앙이죠.(36:01)

 혹 내가 지난주일, 지난 한 달 눈치를 살피는 신앙을 했던가

아니면 내가 하겠나이다하는 주 담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던가?

내가 혹시 약아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신학자가 쓴 그 글을 보고 참 마음이 찔렸습니다.

내가 약아빠진 생활을 너무 오래했구나...

이대로라면 계속 그럴 수 도 있겠구나 무언가 내가 교정 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하는 이 봉사와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혹 이기적인 목적의 의해서 때로는 하기도하고 말기도하고 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지는 않은가?

그래서 나는 다윗의 발끝도 따라가기 어렵겠구나

그런 자책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가운데 이런 대목을 주의해야 하죠...

David siguió adelante teniendo la valentía.

Y pudo obtener la audacia a través de los entrenamientos.

Lo más decisivo es porque él es el hombre del amor.

Ahora Iré y pelearé

Así pudo hacer la decisión de la fe.

En este sentido, necesitamos examinar estas cosas.

¿Tengo la fe que **echa una mirada furtiva**?

¿Sino, tengo la fe que Yo iré!?

Había una mujer que decía. ¨Si perezco, que perezca¨

Había un profeta que tenía la fe de que decía: ¨Heme aquí. Envíame a mí.¨

Pero como la confesión lamentable de alguien...

Estamos viviendo en una vida de debilidad.

Ya todos sabemos bien cómo tenemos que responder.

Y estamos escapatandonos de estas situaciones desde muy lejos. Es una **fe de echar una mirada furtiva**

Quizás yo en el fin de semana pasado, y el mes pasado,

Llevé la vida de la fe que **echa una mirada furtiva**?

Sino confiaba en El Señor con la audacia de que dice lo haré yo.

Quizás no estoy llevando una vida de la fe débil?

Cuando leí una frase que escribió un cristiano, me avergonzaba.

Ahh. He vivido mucho tiempo en cómo ser tan Astuto(약아빠지다).

Si sigue así, lo mantendrá para siempre.

Ahora yo tengo que corregirlo. Pensé en eso.

El servicio que me encargo y la vida de la fe que llevo.

A veces con fines egoístas, a veces lo hago, lo evito y lo huyo....

Por eso. Yo no puedo **alcanzar hasta los pies de David**

Así me había reprochado a mí mismo.

Pero nosotros entre estas cosas tenemos que prestar atención de esta manera.....

17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지난날의 모습이 이렇게 본인의 회상으로 그려집니다.

본인의 회상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아이들이 어린시절을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아야 되는가? 그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훈련....훈련은 왜 받습니까? 묻는다면 한 만디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겠죠?

그랬을겁니다. 훈련을 왜 받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정적일 때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총쏘는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남발하는 훈련합니까?

큰일납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결정적일 때 그들의 생명의 위협가운데서 딱 한번 쓰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면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십년 뒤의 모습을 아십니까?

1Sa 17:34 David respondió a Saúl: Tu siervo era pastor de las ovejas de su padre; y cuando venía un león, o un oso, y tomaba algún cordero de la manada,

1Sa 17:35 salía yo tras él, y lo hería, y lo libraba de su boca; y si se levantaba contra mí, yo le echaba mano de la quijada, y lo hería y lo mataba.

1Sa 17:36 Fuese león, fuese oso, tu siervo lo mataba; y este filisteo incircunciso será como uno de ellos, porque ha provocado al ejército del Dios viviente.

1Sa 17:37 Añadió David: Jehová, que me ha librado de las garras del león y de las garras del oso, él también me librará de la mano de este filisteo. Y dijo Saúl a David: Vé, y Jehová esté contigo.

David recordó su pasado en los días anteriores.

Aunque fue su pasado, Para nosotros,

Nos muestra cómo nuestros estudiantes tienen que recibir el entrenamiento de Dios en su niñez

Entrenamiento. ¿Por qué se entrena? Si nos pregunta, alguien podría responder en una palabra?

Sí ¿Por qué recibe el entrenamiento?

En resumen, para ser utilizando cuando es decisivo.

Hacen mucho entrenamiento de tiro de pistola. Para gastarlo entrenan? NO.

Pues en el momento crucial, decisivo, solo una vez en el momento que tenga la amenaza de la vida.

Para aquel momento están entrenando.

David, cuidando a las ovejas, hizo de esta manera y de otra manera ¿no?

Pero sabéis ¿Cómo se convirtió después de 10 años?

그는 그뒤로 물뫼와 돌맹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이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군대장관이 되었습니다. 장관이면 칼을 써야죠.

이거하고 있겠습니까? 이거는 왜했냐라는 겁니다. 평소에....

요 때에 요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긴 시간 훈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적일 때 쓰실려고 그래서 훈련을 그런 것 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아이들이 암송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매사에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하나는 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꾸준하게 주일헌금을 훈련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우리아이들은 훈련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받아야 선생만한 아이들은 만들어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훈련 받은 대로 아이들을 그 수준까지 가르칠 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학교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가장 해야 할 일중에 무엇이 있느냐?

성실하게 훈련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련해주신 이 훈련장에서....

직장이라는 훈련생활...

사회라는 훈련생활....

가정이라는 훈련생활....

교회라고하는 훈련장소...

Él a partir de ese momento, no utilizó honda y piedras

No hace falta.

Después de vencer en esta guerra, se convirtió en el general del ejército.

El general utiliza la espada. Utilizaría eso(honda y piedras)? Pues por qué lo practicaba habitualmente??

En este momento, para este acontecimiento.. Dios hizo entrenar a David durante tanto tiempo.

Para utilizarle por un momento decisivo...Entonces lo hacía el entrenamiento para usar en el momento crucial.

Hay un dicho tan famoso.

Usted. Si no entrena. En el momento decisivo, no puede actuar por Dios.

Si no entreno ahora, no puedo actuar por Dios.

Si nuestros estudiantes no entrenan en memorizar la palabra, se derrumbarán antes de la tentación del pecado crucial

Si ahora no entrenamos en pensar profundamente en Dios , cuando sea decisivo, pensaremos omitiendo una cosa crucial

Además si ahora no nos capacitamos hacer las ofrendas constantemente, en el momento decisivo, escaparemos en mostrarnos a Dios.

Por lo cual, tenemos que entrenar y nuestros estudiantes tienen que entrenar.

Para que sean los estudiantes igual que los profesores,

Primeramente tenemos que ser entrenados.

Y después podremos enseñar a nuestros estudiantes conforme hayamos sido entrenados.

Entonces en el resumen, ¿Cuál son papeles que los profesores deben hacer ahora mismo en la escuela de la igelsia? Ser diligentemente entrenado.

En el campo de instrucción que Dios ha preparado.

En el campo del Trabajo.

El campo de la vida de Sociedad.

El campo del Hogar.,

El Lugar de entrenamiento de la Iglesia.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라면, 받아야 되느냐....이거 받아야 내가 결정적일 때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훈련...훈련....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싸우겠나이다. 훈련 받은 사람만 그런 담대한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힘있게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냥 나온거냐.

반드시 훈련이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훈련 안 시키는 부대가 어디 있습니까?

훈련 안 시키는 지휘관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딘가에서 그 주특기에 맞게 지금도 끊임없이 치밀하게 훈련을 하고 계시는 근원이시다.

결국 그 훈련장에서 성실하게 훈련받는 그리스도인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가서 싸우겠나이다 라고 한 다윗의 말 다음에 나온 사울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히죠.

37절 후반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앞부분에 건져내셨으니,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가라 원하노라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Si ese lugar, fuese el entrenamiento que nos dio Dios...

¿Tenemos que aceptarlo?

Entrenar considerando que debo recibirlo para que pueda sobrevivir en el momento decisivo.

Hay que pensar-decidir en eso.

Yo pelearé. Solamente el que ha sido entrenado puede declarar eso valientemente.

Hay cristianos que son ingobernables

Sí, Hay.

Existen algunos cristianos que el mundo no puede gobernar.(no soporta el mundo)

Los cristianos que da su vida para el evangelio.

Hay unos cristianos que confían en Dios tan fuertemente. Pero ellos aparecen naturalmente?

Ciertamente deben haber sido entrenados.

¿Por qué? Somos militares.

Porque claramente dice que nos ha llamado como el ejército.

¿Dónde está la tropa que no haga entrenar?

¿Dónde está el comandante que no entrena?

Dónde sea..., está entrenado según su especialidad Elaboradamente(Cuidadosamente). Es la realidad de aquello.

Finalmente, en el campo de batalla, un cristiano que ha sido entrenado diligentemente podrán crecer como el cristiano que no puede ser dominado por el mundo.

La respuesta de Saúl al escuchar el dicho de David yo pelearé// también fue maravillosa.

Es posterior del versículo 37.

Y dijo Saúl a David: Vé, y Jehová esté contigo

David dijo que al Igual que me guardó antes, también me guardará a mí de la misma manera

Saúl respondió, Bueno. Esté contigo

왜 사울이 그런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었을까?

그런 대답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못 말리는 거에요. 믿음이 보입니다. 용기가 보입니다. 담대함이 보입니다.

이건 교만도 아니고 무모함도 아니며, 이건 덩어리가 완전히 하나님앞에 활활 불타오르는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니까 야 이거 못말리는 거구나

얘 꼭 보내줘야 되겠다.

안되겠다. 빨리 보내줘야되겠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누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사울과 같은 입장에 있었으면 다윗을 보고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39절보겠습니다. 39절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

중요한 모습만 딱딱 색칠을 하면 익숙치 못하므로, 익숙치 못하니 곧 벗고

이렇게 되겠죠.

익숙치 못하므로 익숙치 못하니....

곧 벗고....

한마디로 뭡니까?

익숙치 않으면 벗으셔야 되요.

익숙하지 않는데 입고있는거 있죠.

익숙치 않으면 벗어야 됩니다.

익숙하지 않다라는건 속일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도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고, 자기와 어울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좀 동떨어지게 놔둔거라면 그거 누가 붙여줘도, 벗어야 됩니다.

자기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야 이거 익숙치 않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실려는 게 아니구나 벗어야 되겠다.

계속 입고 있으면 어떤일이 벌어지죠.

험한꼴 당합니다.

¿Por qué Saúl tuvo que responder así?

Tenía que responder así.

No puedo detenerlo. Se ve la fe. Se ve el valor. Se ve la Audacia.

Esto no es arrogancia, ni imprudencia.

Mirando que está hablando ardientemente con Dios , Ah, no se lo puede impedir.

Debo que enviarlo sin falta.

Tengo que enviarle rápido.

Vé, y Jehová esté contigo

Él(Saúl) tenía que decir eso.

Si estuviera en ese lugar como Saúl, mirando a David, tendría que decir eso.

Vamos a ver versículo 39

1Sa 17:39 Y ciñó David su espada sobre sus vestidos, y probó a andar, porque nunca había hecho la prueba. Y dijo David a Saúl: Yo no puedo andar con esto, porque nunca lo practiqué. Y David echó de sí aquellas cosas.

Si resaltamos algunas partes importantes.(con resaltadores de colores)

Porque nunca había hecho la prueba..... Echó de sí aquellas cosas...

Porque nunca lo practiqué..

Las echó

¿Qué es en una palabra?

Si no lo ha practicado, tienen que quitárselo.

Tenéis algunas cosas que no están familiarizadas, debería despegarlas.

Al No ser familiar, nos podemos engañar,

No es adecuado para Dios.

No importa cuán bueno sea...

el talento que no sea familiar para mí, o si Dios hiciera apartarse con la intención.....

Debería despojar de mí según su conciencia.

Ah. Eso no estoy familiarizado conmigo.

Dios no me permite eso. Tengo que quitarlo.

Si sigue usándolo, ¿Qué pasaría?

Será quebrantado.

다윗이 만약에 입고 나왔다고 쳐보십시오.

달려나가는게 어~~앞을 가렸어요. 어디야?

칼을 뺏는데 칼이 다 안 나왔잖아요.

칼이 다 안 나옵니다. 짧으니까 ....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익숙치 않으면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안되느냐?

진짜 자기에게 익숙한 걸 잡아야죠.

익숙한 걸 잡아야 됩니다.

아까 그 선명하게 대조되는 두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시냇가로 가서~~ 돌멩이 주어오는 장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있었다면

막...킥킥 거렸을겁니다. 킥킥...뭐하냐 ...

시냇가에는 놀러가나보다. 어!~ 돌멩이 줍네...

어~~이상하다.

장난치는 모습 같잖아요.(47:10)

그런데,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과 정 대조되는 시선이 있었으니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멩이를 고르는 다윗의 손과 마음을 어떻게 동요하셨을까?

이랬을겁니다.

다윗아 훈련한대로 하자

연습한대로 하는거야

그거 그거 골라 그리고 준비 해야돼.

우리 준비 했었잖아 하나 더 골라 또

몇 개를 고릅니다.

다윗은 엄청 진지했던겁니다. 이 순간

그리고 하나님도 정말 진지함으로 그 순간 함께 하셨습니다.

남들 보기에 다! 장난 같았는데, 다윗과 하나님만큼은 그 어느때 보다도 진지했다는 겁니다.

Vamos a imaginar que David hubiera llevado ese vestido. Al correr, impide, estorba la vista. ¿Dónde estoy?

Al sacar la espada, no sale toda la espada

No puede sacarla toda. Por que él era bajo(cuando era niño)

Así acontecería.

Si no está acostumbrado, debería quitarsélo.

Y Después?

Hay que coger lo que está familiarizado.

Debe atrapar lo actuado

Ahora aparece una de las dos escenas contrastantes.

La escena de ir al arroyo y recoger unas piedras.

Si hubiera mucha gente que obervan eso, haría mucha burla a él.

¿Qué hace? Ha ido a arroyo para jugar.

¿Recoge las piedras? Muy extraño....

Parece que está jugando.

Pero había una evaluación totalmente diferente que la de las personas, una mirada distinta de las ajenas.

Esa fue la Vista de Dios y el corazón de David.

¿Cómo Dios provocaría a la mano y el corazón de David al seleccionar las piedras de Dios?

Sería así.

David, hazlo como has sido entrenado.

Como tú practicabas.

Sí eso es, recoge eso. Y hay que preparar.

Hemos preparado. Coge una más

Y seleccionó unas más.

David fue tan serio en este momento.

Y Dios también estába acompañando con sinceridad en aquel momento.

Para todos los demás, parecía como una broma.

Pero David y Dios fue más serio.

그리고 사람들은 다 벗고 나간 다윗을 봤죠

그냥 자기 평상복 입고 시냇가로 나가는 다윗을 봤습니다. 근데 못 본 게 하나 있죠.

여러분이 그 자리 계셨더라면, 보실 수 있었을 거에요.

흐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윗은 휘감고 있구나.

왜? 하나님이 지휘관이신데,

지휘관이 지금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전신갑주를 안 입히고 내보내는 지휘관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무기장착을 최종적으로 하러 무기고로 가는 겁니다. 무기고로

신중하게 무기를 골라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어떤 것 보다도 가볍고, 어떤 것보다도 탄탄하며,

그 어떤 것보다도 날쌔게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전신갑주가 그 다윗을 휘감고 있는 장면을

우린 봐야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돌멩이를 고를 때

이런 오류에서 벗어 나셔야 합니다.

야, 돌멩이까지 고르냐? 다윗, 너 믿음의 사람 아니냐?

믿음의 사람이잖아 믿음대로해

마귀가 이렇게 속삭였을거에요.

야, 너 내가 믿음 인정해줄게

갑옷 다 벗어

이제 나가.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 가서 때려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을 때, 기도를 더 이상 말릴 수 없습니다.

다만 기도에 대한 신실한 반응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신실한 기도와 믿음이 있을 때는

신실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Y las personas vieron a David que no llevo ningun vestido armado.

Ellos han visto que David se fue al arroyo poniendose un vestido normal. Pero hay una cosa que no pudieron ver.

Si estuvieráis allí, podéis verlo.

Oh es toda la Armadura de Dios.

Toda la armadura de Dios **está abrazando a David**

¿Por qué?

Porque Dios es su dirigente...

Ahora su dirigente está enviando a David al campo de batalla,

¿Dónde está el comandante que lo envié sin toda la armadura?

Poniendose toda la armadura de Dios, está en el camino hacia el depósito de armas. El arsenal.

Y están seleccionando juntos cuidadosamente.

Toda la armadura de Dios invisible.

La más ligera que cualquier cosa, la más sólida

Más que cualquier otra cosa, puede llevarme.

Tenemos que ver la escena de que toda la armadura de Dios que rodeaba de David.

A través de los ojos de la fe.

Además cuando recogió las piedras este David...

Tenemos que evitar tales equivocaciones...

Oye. Recoges hasta las piedras? No eres el hombre de la fe? Tú eres el hombre de la fe. Haz según tu fe.

Quizás el diablo hablaría al oído así.

Bueno. Yo reconozco tu fe.

Quitate toda la armadura.

Y Véte. Véte con un palo y golpealo.

Una característica de la tentación del diablo es...

Cuando nosotros oramos,,,

Oramos bastante.. (diablo) no puede impedir orar.

Pero simplemente no permite que hagamos reacciones fieles a la oración.

En resumen, cuando haga oración fiel y tenga la fe.

Debe tener una reacción fiel.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위해 곧장 들어갔느냐?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믿음 없는 행동이었느냐? 불신의 행동이었느냐?

아니죠, 신실한 기도와 믿음에 신실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게 신앙의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그의 별명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성전을 제건할 때 대적들의 방해를 없애기 위해서 주야로 파수꾼을 두어 경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하러 파수꾼까지 두느냐

그게 바로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한 기도와 믿음이 있으면,

신실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윗 또한 믿음과 그 기도, 다음에 반응을 보인겁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크리스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하고

행동은 모든 것이 내게 달려 있는 것처럼 하고

그게 신실한 기도의 신실한 반응.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실한 반응을 보였는데, 우리가 신실한 반응을 보였느냐?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신실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뭔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Por ejempo… Josúe…

¿Para tomar el Jericó entró directamente?

Envió 2 espías antes de cruzar el río Jordán, para tomar Jericó, Fue una acción que no tenía la fe? Fue incredulidad? Fue un acto de desconfianza?

No. Eso fue reacción fiel a la oración fiel y a la fe.

Porque eso es la clave de la fe.

Y ¿Cómo fue Nehemías? Su apodo es el hombre de Oración.

Nehemías, un hombre de oración, al construir de nuevo el templo de Dios, para proteger de los obstáculos de los enemigos, puso los vigilantes por el día y por la noche.

¿Por qué el hombre de Oración, Nehemías puso vigilantes? no solamente con la oración?

Porque es la respuesta correcta.

EN tiene la oración fiel y la fe sincera,

Debe haber una reacción fiel.

David también tenía la fe y la oración. Y después reaccionó.

Dios... ahora hago mi trabajo.

ahora haré lo que tengo que hacer.

Y haré todo lo posible para cumplir eso.

Un cristiano conocido dijo eso.

La oración es como si todo dependiera de Dios.

El acto es como si todo dependiera de mí.

Esa es la reacción fiel de la oración sincera.

Así podemos resumirlo

Por eso podemos preguntar, David reaccionó sinceramente, pues ¿Si estoy mostrando la respuesta fiel?

Como somos el maestro, estamos reaccionando fielmente?

¿Quién es el cristiano?

Quien encuentra al Cristo y vive para el Cirsto

Es Cristiano....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교사를 했는데

믿음의 교사답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면 아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거구나

반응을 보이자

주님 제가 반응을 보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아이들을 위해 치밀한 노력과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런 실천된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훈련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에서의 핵심은 훈련입니다!

주님 앞에서 제대로 훈련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그 믿음은 훈련된 믿음이었다

다윗의 그 용기는 훈련된 용기였다.

다윗의 담대함은 훈련된 것이었다.

틀림없다 그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교사된 자로서 먼저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다윗과 같이 훈련된 아이들을 배양해야 한다.

그래서 이 교회학교라고 하는 훈련장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입소 시켜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훗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주님위해 살고 있을 때,

옛날을 회상할 겁니다.

그날 어린시절 교회학교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훈련들을 그 훈련을 기억하면서 다윗과 같이 담대히 말할 수 있을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져내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싸우러 가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Yo me he encontrado a Cristo.. Estoy viviendo para el Cristo? Tengo la fe. Pero ¿llevo una vida que reaccione con lealtad conforme a la fe?

Yo me dediqué a masetro con la fe....

Pero, ¿Estoy respondiendo como un maestro de fe?

Si no es así, tengo un problema en mi fe.

Voy a reaccionar.

Señor, responderé

Podemos pensar en tal confesión.

Entonces, como el maestro, debemos mostrar esfuerzo delicado y reacción para nuestros estudiantes

Preparamos mucho, estudiamos duro

Los amamos mucho... estoy hablando sobre las reacciones tan prácticas.

En resumen, la Clave es

Es el entrenamiento.

El núcleo entre David y Goliat, es el entrenamiento.

El que ha sido entrenado adecuadamente adelante de Dios, podrá vivir dignamente-merecidamente como el militar de Dios.

David, la fe de David es la fe entrenada.

La valentía de David es la valentía entrenada.

La audacía de David es la entrenada.

Cierto eso.

Así que como somos profesores,

Tenemos que ser entrenados adecuadamente ante Dios para educar a nuestros estudiantes como David ha sido entrenado.

Por eso podemos decir que Dios ha admitido a los estudiantes al campo de instrucción, a la escuela de la iglesia.

En el futuro, nuestros estudiantes después de convirtirse en el trabajadores de Cristo, viviendo duro para el Señor, van a recordar los viejos tiempos.

En aqueL tiempo… recordando los entrenamientos de Dios que reciben en la escuela de la iglesia…

Podrían decir valientemente como David

Dios me ha guardado. Ahora iré y pelearé.

Así ellos podrán confesar.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해봅니다.

야, 내가 얼마나 더 배워야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더 배워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내가 더 배우고 더 연습을 해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텐데

내가 부족한 게 훈련이구나

혹시 하나님은 내게 많은 훈련을 주셨는데

내가 너무 오랜 시간 너무 자주 너무 여러 번 훈련을 피하고, 피하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 앞에 좀 더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훈련을 받아야겠다

이런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핵심은 훈련입니다.

아이들이 어른, 부모,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몰라서, 둘째 훈련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는 것 알려줘야 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의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말씀 중에, ‘훈련’이라는 중요한부분을 같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훈련. 우리가 혹 회피하고 있는 훈련. 우리에게 일깨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담대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이 교회학교 안에서 온전히 훈련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교사로서의 올바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의 일정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Resumimos..

He pensado eso ¿Hasta cuándo tengo que aprender para confiar totalmetne en el Señor?

¿Hasta cuándo tengo que aprender para vivir para Señor?

Para vivir para ElSeñor, debo aprender más y practicar.

Me falta entrenar.

Tal vez Dios me ha dado muchos entrenamientos...

He evitado entrenar por mucho tiempo, muchas veces, con mucha frecuencia.

No vivía evitandolo? Podemos reflexionar eso.

Así que desde entonces, con un corazón más sincero,

Necesito ser entrenado por el Señor.

Podemos resumirlo así.

Por eso, el núcleo de David y Goliat es el entrenamiento.

Un estudioso mencionó que la razón de que el niño no escucha a un adulto, a sus padres y a su profesor es

Primero por no saber y segundo porque no ha sido entrenado. ¿Cómo harán?

Hay que enseñar lo que no saben y hay que entrenar.

Entonces escucharán la palabra de Dios, llevarán una vida de la obediencia. Vivirá como hombre de Dios, digno de ser Cristiano.

Terminamos con la oración.

Dios padre del Amor, te damos muchas gracias.

Hoy , a través del tema David y Goliat.

Entre muchas palabras de Dios, hemos pensado sobre el entrenamiento. El entrenamiento que nos falta, el que tal vez estamos evitando.. Recuérdanos y Amplia nuestros corazones para que reciba audazmente los entrenamientos que Dios nos de.

Ayudanos para que podamos instruir bien a los estudiantes en la escuela de la iglesia.

Y para que tengamos una actitud correcta-digna como el maestro.

Los planes de hoy también confiamos en tí

Hemos orado en el nombre de Jesús que nos ama siempre.